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⑮

以無念無作無無時劫地位
이무념무작고 무유시겁지위
漸次之行亦無法義差別之相
점차지행역무법의차별지상
以具修故塵數法門諸地功德
이구수고진수법문제지공덕
妙心體具如意珠此中惺惺寂寂之義
묘심체구여의주 차중성성적적지의
或直約離念心體或約
혹직약리념심체혹약
用功門說之故修性俱圓理行兼暢
용공문설지고수성구원이행겸창
용공문설지고수성구원이행겸창
修行徑路莫斯為最
수행경로막사위최

알는데 왜 삼현이나 심성 등 점차로 깨달아가는 법을 논하는가. <원각수증의>에는 '돈문(頓門)에는 일정한 지위란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했고 <기신론>에는 '깨달음이란 마음 자체가 생각을 여인 것을 말한다. 생각을 여인 상태는 허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온 법계가 한 몸이다. 이것이 곧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다.' 하였다.

又云 若有眾生 能觀無念者
우운약유중생능관무념자
即為向佛智故 四祖 謂該禪師曰
즉위향불지고 사조 위응선사왈
夫百千三昧 無量妙門 盡在汝心
부백천삼매 무량묘문 진재어심
故知 若不自心 圓該諸法 又不知聖教
고지약불요자심 원해제법 무부지성고
千途異說 隨順機宜
천도이설 수순기의
천도이설 수순기의

무념, 무작이기에 시간과 지위 등 점차로 뒤는 수행이 없고, 또 법이니 뜻이니 하는 차별상이 없는 가운데 수행하기에 많은 법문과 모든 지위의 공덕이 묘심(妙心)에 갖추어져 있음이 여의주와 같다. 이 안에 '깨어 있고, 고요하다'는 이치를

명분 다툼 지견의 장애 일으키나
마음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

바로 생각을 떠난 마음에서 말하기도 하고, 혹은 공부를 쌓는 법에서 말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과 본성이 다 원만하고 이치와 실천이 함께 통달하니 수행의 지름길로 이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

無不指歸自心法界 而返就文字差別諸門
무불지귀자심법계 이반집문자차별의문
又自生法弱 望滿於三昧行位者
우자생법약 망만어삼지행위자
非性宗得意修心者也 如有此病
비성종득의수심자야유차병
請從今改
청종금개
청종금개

但得意修心 脫生死病為要
단득의수심 탈생사병위요
何用名義辯論 而與見障乎 而今
하용명의변론 이흥견장호이금
若善得離念心體 即與佛智相契 何論
약선득이념심체 즉어불지상계 하론
三賢十聖 漸次法門 圓覺修證儀云
삼현십성 점차법문 원각수증의문
삼현십성 점차법문 원각수증의문
頓門無定位 心淨即名真 起信論云
돈문무정의 심정즉명진 기신론은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소언각의자 위심체이념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通
이념상자 등허공계 무소불변
法界一相 即是如來平等法身
법계일상 즉시여래평등법신

또 만일 어떤 중생이 무념(無念)을 잘 관찰 수 있다면 곧 부처의 지혜로 향한다' 하였다. 그리고 사조 도신(隨順)스님은 용 선사에게 '수없는 삼매와 한량없는 법문이 모두 네 마음에 있다.' 하였다. 그러나 제 마음이 모든 법을 포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성인의 가르침이 천 갈래로 다르게 말한 것은 근기에 따라 자기 마음의 법계로 돌아가게 한 것인데 도리어 글자의 차별에 집착하고, 거기 에다 나약한 마음으로 삼아승지(三阿僧祇)보살이 부처되기 위한 수행절차, 또는 그 햇수를 말하는 수행절차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종(性宗)에 뜻을 두어 마음을 닦는 자가 아니다. 만일 이런 병이 있거든 당장 고치기를 바란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가까이서 뵈 큰스님

활안스님

조계산 천지암 조실

“한 생각 또렷하면 천지가 봄”

산에 오르며 지극히 당연한 의문 하나를 떨치지 못했다.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 지금이야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평평해진 길이 부처님 모신 대웅전 앞까지 나왔지만, 예전이 도량을 열었던 스님들은 속진을 멀리해 첩첩산중에 터를 잡았다. 그런데 속진에 들든 중생이 오롯한 암자를 찾는 연유는 무엇 일까.

기쁨을 내뿜고 있다. 거기에 활안스님이 계시다.

활안스님은 새벽 2시엔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도량석에 나선다. 도량석부터 조석예불과 천도재를 주도하신다. 기자가 천지암을 찾았던 다음 날 새벽예불. 목탁을 치던 스님이 장갑을 벗지 않고 있었다. 바로 불호령이 날아갔다. '이놈, 법당에서 장갑을 끼고 목탁치는 놈이 어딨어, 이래 내놔라.' 깜짝 놀란 젊은 스님이 허리를 굽혀 잘못을 빌고서야 장갑의 소란이 가셨지만, 법도에 어긋남을 봤을 땐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쳐서 바로 잡는다. 철순 중반의 노구임에도 '젊은 날의 스님 사진을 보면 퍼렇게 날 선 도끼와 같다'고 말하는 후학들의 평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릿발같은 엄함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저녁 공양 후 한 수행



▷새벽예불 후 통행하는 천도재는 활안스님의 20여년 일과이다.

조계산 천지암. 고려말의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결사를 열었던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자취가 서려 있는 암자이다. 천지암의 명문인 쌍향수(雙香樹)는 보조스님과 당나라 왕자 출신으로 보조스님의 제자인 담당스님이 짚었던 지팡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산죽과 겨울바람이 어울어지는 조계산 중턱, 숲이 락에 차고 다리가 백백해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암자의 초입에 닿는다. 범종각과 범랑루 아래로 펼쳐진 첩첩한 산등성이가 아득하다. 마치 도반처럼 나란히 서 있는 800년 묵은 쌍향수는 여전히 푸르른 기상과

“행하지 않으면서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가”



◁천지암 뒷산 감자밭을 일구고 있는 활안스님(99년 봄).

자가 질문을 드렸다. “스님, 유학(儒學)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스님의 답변이 이어진다. 어린아이의 질문에 답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음성이다. ‘유학에서도 인천(人天)의 도리를 설하고 있으니 공부해도 닦할 일은 아니지. 그러나 유학에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빠져 있어. 나라고 하는 놈이 빠져 있으니 조선 500년의 폐불이 있었고, 폐불은 어쩔 수 없는 유학의 흠이지.’

천도재를 올리는 것도 스님의 새벽 일과다. 6.25 한국전쟁, 80년 광주의 5.18, 2차대전 때 학살당한 유대인 등 재앙으로 목숨을 버린 원혼들을 위로한다. 오전에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참선에 든다.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과이다. 요즘은 간간히 붓을 들기도 한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고 수행자의 할 일이 참선과 기도 말고 무엇이 더 있겠어요. 깨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인데 수행해야지요. 나이 먹었다고 수행자의 일을 놓아버리면 안 되지요. 특별하게 붙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야 어찌 살았건 이곳에 와서는 객스님이나 기도하러 온 재가자의 일과도 이와 같다. 노스님이 직접 나서서 안나설 수 없어 처음에는 어정정한 마음으로 따라하지만, 며칠 지나면 활안스님의 변치 않는 초심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겨울 한철 활안스님을 모시고 살았다며 천지암에 들어온 대법스님은 “요즘은 어느 절에 가든지 몸 편하게 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이 계를 러지기 마련”이라며 “노스님 회상에 오니 환희심이 난다”고 말한다.

사람 몸을 굴러야 하니 게으름이 붙어다 니게 마련이다. 활안스님은 백운산에서의 일화 하나를 꺼낸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낮에 손을 베었다. 피가 흥건했다.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해야만 성불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저녁을 해먹고 참선에 들었다가 깜짝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큰 부처님이 스님을 팔베개로 버린 원혼들을 위로한다. 오전에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참선에 든다.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과이다. 요즘은 간간히 붓을 들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나를 버리라고 했는데, 아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스님께 여쭙었다. “타고난 성품을 개발하면 대우주의 무한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없으므로 생명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듯하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설행한 방편이 수백 수천의 경전이고 어록인데, 행하지 않고서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다는 호풍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건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하기도 불가능한데, 마음의 움직임과 깨달음의 경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과 글로써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되물음이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밤에 색시가 지필묵을 내밀며 시 한수를 달라고 했다. 무식쟁이 신랑이 배운 게 없어 써줄 수 없었지. 그 길로 산 속에 들어가 10년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누구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대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면 자신도 모르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또렷이 드러나게 되는 법이지.”

이여 스님은 “운명을 바꿔줘야 해. 법칙을 범하지 않되 자기의 뜻이 표준이 되어야 한

Advertisement for 'Qi' (氣) therapy. Title: '숨없는 숨으로 대는 사람들'. Author: 원장 윤정주 저서. Features: 진여(眞如) 氣 수련원. Contact: 02-736-7148, 723-3856.

Advertisement for 'Seon-sik Gyeongjeong' (선식 경정궁) 'Ginseng Flower' (金檀花). Author: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Features: '신식 경정궁', '金檀花'. Contact: 02-3437-8282.

Advertisement for 'Reiki' (레이키) therapy. Title: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Author: 레이키(Reiki) 연구회. Features: '레이키(Reiki) 연구회'. Contact: 02-720-5682/725-2311.